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

양 정 하**

◀ 요약 ▶

정책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이념적이고 문화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회정책은 기존의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사상에 관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전통사상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는 맥락에서 유교사상 중 선진유가 정치사상이 갖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파악하였는데, 그 함의는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볼 수 있다.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이라는 사회정책의 핵심영역을 시사하고 있고 그리고 제한적이고 부분적으로 사회정책의 제 가치와 공유하고 있다. 그리고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국가복지와 공리주의라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신할 새로운 복지사회의 모색하는데 있어 단초를 제공한다. 요컨대 선진유가 정치사상을 포함하는 유교사상은 사회정책을 포함하는 다 방면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고 활용되어야 할 유산이라고 하겠다.

주제어: 사회정책, 선진유가 정치사상, 사회정책의 영역과 가치, 복지사회

* 본 논문의 발전에 도움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경남정보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yangjh1485@naver.com)

1. 서론

우리나라는 복지국가의 건설, 사회통합의 달성 그리고 통일의 완수라는 국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는데 사회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그래서 사회정책은 단순히 정책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념적이고 문화적인 문제인 것이다(양정하, 2010: 342). 그러한 맥락에서 사회정책은 기존 방식에 의한 사회정책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을 통한 연구를 필요로 한다. 여기서 기존 방식에 의한 사회정책 연구는 논외로 하고, 한국의 전통사상을 통한 연구는 기존의 사회정책의 연구에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고, 그리고 향후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자본주의 사회가 파생시키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도움을 주거나, 기존의 복지국가를 넘어 복지사회를 모색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전통사상 중의 하나인 유교사상은 사회복지의 발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박병현, 2008: 254). 유교의 사회복지는 가족과 공동체를 통한 사회복지로 유교의 가족주의에 기원을 두다 보니(최연식·임유진, 2011), 국가가 사회정책의 주체가 되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복지를 정착시키는데 걸림돌이 되었다. 대체로 유교주의 복지국가(Confucian Welfare State) 혹은 동아시아 복지국가(East Asian Welfare State)로 분류되는 국가들은 낙후된 국가복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유교사상은 사회복지 발전에 있어 저평가 내지 부정적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유교문화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복지체계의 형성요인에서 중요하다(Jones, 1993: 214). 동아시아 국가들은 가족집단주의의 윤리체계를 그 본질로 하는 유교문화의 현대화를 통해 이들 개별 국가의 고유문화에 입각하여 이른바 ‘동아시아형 사회복지’를 모색·구축하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동아시아 복지모델의 유형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홍경준, 1999; 신섭중, 2004; 심창학, 2004) 반면에 이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대두되기도 한다(조영훈, 2001). 동아시아 복지모델 내지 동아시아형 사회복지의 구축에 따른 논쟁이 제기되는 가운데 유교사상에 바탕을 둔 복지사회의 실현방법 내지 사회복지 실천의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타진하는 연구들도 소개되고 있다(선현규, 2004; 오세근, 2011).

사실 유교사상은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개인의 자유와 평등에도 무관심하고 튼튼한 국가의 건설에도 무관심하다. 유학은 늘 가부장적 질서 위에서 있다. 특히 민주주의를 교조적

으로 숭배하는 오늘날에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다(김형효 외, 2000: 194). 그런데 유교와 유교 정치사상에는 전근대적인 측면과 근대친화적인 측면 그리고 탈근대적인 측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홍승표, 2005). 이러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유교 정치사상은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사회 전반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유교사상을 빨리 버릴수록 좋은 낡은 유산으로만 치부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인 것이다.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에 대한 연구는 그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전제로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전근대뿐만 아니라 현대의 사회복지제도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유교사상 중 선진유가 정치사상으로 한정하였다. 정치사상은 가치와 믿음을 포함하는 이데올로기로 사회복지제도 내지 사회정책을 포함하는 사회제도의 형성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유가 정치사상도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통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 유가사상의 전형 중의 일부로 구성하고 있어, 사회복지제도 내지 사회정책에 함의를 제공해 줄 것으로 사료된다.

유교사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선진유가(先秦儒家)의 삼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공자, 맹자 그리고 순자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자는 요순 이래 문물을 종합·정리한 유가의 조(祖)로서 고대 천을 중심으로 한 왕도정치를 인도(仁道)를 중심으로 한 인문주의 정치사상을 일대전환을 이룩한 성인이다. 공자의 뒤를 이은 유가의 양대 조사가 맹자와 순자인 것이다(최성철, 1997: 322). 전국시대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맹자는 통치자에게 도덕에 기초한 왕도정치를 실현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였다. 그와는 달리 순자는 전국통일에 대한 열망을 가지게 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정통유가가 표방하는 왕도정치를 망라하는 패도정치를 포용하였다.

공자의 정통성을 이어 받았다고 주장하는 순자와 맹자의 학풍에서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즉 순자의 학풍은 경험적·현실적이면서 객관적인 경향을 보이는데 반하여, 맹자의 학풍이 이상적이고, 주관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학풍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맹자와 순자 등은 기본적으로 유교의 이상주의 즉 덕치주의를 표방·강조하였다. 그렇지만 양자는 유교의 이상주의를 실현하는 입장과 태도를 달리하고 있다. 맹자는 극히 이상주의자이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였다는 점에서는 혁신적이나 초도덕적인 가치를 중시하였는데 반해 순자는 현실주의자였지만, 사회적 통제를 강조하였고 그리고 자연주의를 천명하였다(최성철, 1997: 323).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주대의 봉건제도의 붕괴로 인한 춘추전국시대의 제반 혼란의 극

복이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립되었다.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사회 역시 다수의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를 갖고 있고, 그 문제의 해결을 둘러싸고 대립과 갈등, 긴장 그리고 불신 등의 상태에 놓여 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다양한 제자백가 사상이 유행하였는데, 그러한 사상 중에서 대표적인 사상이 유가 사상이다. 그 당시의 혼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가 사상 중 정치사상은 덕치주의를 표방하였다. 장구한 역사를 통해서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직면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濫故而知新的의 가치를 제공하여 왔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현대사회의 제반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유효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진유가 정치사상이 선정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유가의 정치사상은 현대사회의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간주되는 사회정책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서구 복지국가는 사회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사회문제의 해결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회정책 연구이외에 유가사상을 포함하는 전통사상과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도 필요하게 된다. 특히 전통사상과 관련된 사회정책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많은 시사점의 제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른바 유교 복지국가의 모색도 가능하게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라는 연구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그간 유교사상과 사회복지 내지 사회정책과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양정하, 2010, 2012, 2013; 정병석·권상우, 2012). 그리고 유교 정치사상과 관련된 제언이나 주장에 관한 연구(최무중, 1998; 홍승표, 2005)는 있지만, 그것은 사회정책 내지 사회복지와는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연구 실정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는 향후 선진유가 정치사상을 포함한 유교사상과 사회복지 내지 사회정책과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를 진작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도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사상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유교사상 중 선진유가 정치사상에 해당되는 공자의 덕치주의, 맹자의 민본주의 그리고 순자의 예치주의 등을 중심으로 그것들의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데 두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내용이 비교적 많이 관련된다고 사료되는 사회정책의 차원은 사회정책의 영역, 사회정책의 가치,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 그리고 복지사회에 대한 이해 등으로 선정시켰다. 그리고 사회정책의 영역과 사회정책의 가치 등은 사회정책의 내용에 해당되고,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와 복지사회에 대한 이해 등은 사회정책의 개념에 해당

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사회정책의 차원을 내용적 차원과 개념적 차원 등으로 각각 범주화하였다. 이상 논의된 제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표 1]과 같은 개념틀을 구상하고, 그것을 가지고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목적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제기하였다.

- (1)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사회정책의 영역에 어떠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가?
- (2)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사회정책의 가치에 어떠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가?
- (3)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에 어떠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가?
- (4)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복지사회의 이해에 어떠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지는 가?

[표 1]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한 개념틀

|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내용 | 사회정책의 차원 | | 사회정책적 함의 | |
|----------------------------------|----------|-------------|----------|--|
| 공자의 덕치주의 맹자의 민본주의 순자의 예치주의 | 내용적 차원 | 사회정책의 영역 | | |
| | | 사회정책의 가치 | | |
| | 개념적 차원 |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 | | |
| | | 복지사회에 대한 이해 | | |

본 연구를 수행해 나감에 있어 제기될 수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정리해 두고자 한다.

첫째,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접근방법과 범위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다. 먼저 기본적으로 그 사상에 대한 접근은 유교에 대한 접근이 될 수밖에 없다. 유교에 대한 접근은 경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학, 통치이념이나 정치제도 차원의 유교 그리고 일반인들의 생활윤리 차원의 유교 등이 있다(유병용 외, 2002: 15). 본 연구에서 다루는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첫 번째 및 두 번째 접근에 기초하여 선진 유가의 주요 경전에서 나타난 유교의 통치이념에 관한 것이다. 흔히 유교의 사상은 철두철미하게 도덕적 관점에서 “편안한 삶”을 넘어서 “바른 삶” 또는 “인륜적 삶”을 목표로 하고 있다(이상익, 2001: 283-28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범위를 공자의 덕치주의, 맹자의 민본주의 그리고 순자의 예치주의 등으로 한정시켰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순자는 공자, 맹자 그리고 주자로 이어지는 성리학 전통의 입장에서 상당히 경원시되어 온 인물이기 때문에 정통 유교사상가로 분류할 수 있는 가라는 쟁점이 제기된다. 이러한 쟁점에 대한 연구자의 입장은 맹자와 순자는 공자를 뒤를 이은 대표적인 유가로, 맹자는 성선설, 순자는 성악설로 인간본성의 문제에 있어서는 상호반대의 이

론을 전개하고 있으나 그들이 추구하는 이상정치는 공자의 덕치사상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특히 유가의 현실주의적 이상주의에 입각한 순자사상은 유가사상의 발전적 측면이 되었다. 순자는 전국시대에 제나라에서 생겨난 직하학궁(稷下學宮)¹⁾에서 활동하면서 여러 학자²⁾들과 교류하며 그 자신의 사상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순자는 제자백가의 사상을 두루 섭렵하여 유가를 집대성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백가를 집대성하여(신동준, 2007: 89), 정통유학으로 복귀시켰다. 이러한 맥락에서 순자를 유교사상가로 분류하여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리고 본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을 통한 기술적 연구가 사용되었다. 기술적 연구를 통해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 공자의 덕치주의와 맹자의 민본주의

1) 공자의 덕치주의

공자가 살았던 시대에서는 주례(周禮)의 붕괴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으며, 공자는 그러한 혼란은 덕치와 예치를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덕치란 지도자가 술선수범함으로써 백성을 감화시키는 것이고, 예치란 각자의 본분 또는 도리를 설정하고 그것을 준수하도록 하는 것이다(김인규, 2004: 38). 이러한 맥락에서 군주를 비롯한 치자들이 권력을 도덕적으로 행사할 때 혼란을 극복할 수 있다(손문호, 1987: 102-103). 이에 따라 위정자가 덕치를 통해 백성들의 정치·경제적 안정을 고려하고 모두가 하나 되는 정치이상의 세계를 실현해 나간다면 이는 궁극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 간의 팽배해진 긴장감을 최대한 풀어주며, 또한 사회와 국가의 안정뿐만 아니라 천하의 통일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김철운, 2005: 99). 이와 같이 유가사상은 권력이 도덕적 기반 위에 설 때만, 춘추시대의 정치적 혼란은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유교의 이상적인 통치로서의 덕치에서는 군주의 도덕적 감화력을 바탕으로 하여 군주

1) 당시 제나라에서는 일시에 70여명의 유명한 학자들이 운집하여 학문적 연업을 이루었다고 하는데, 그들을 총칭해서 稷下學士라 부르고 그 학설을 총칭해서 稷下學이라고 한다.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저서를 참조할 것(김종무, 1983: 44) 참조.

2) 이 당시에 직하학궁에 활동한 학자로는 맹자를 비롯해 慎到, 田駢, 淳于髡, 環淵 및 宋鈞 등을 꼽을 수가 있다.

의 수기(修己)가 강조된다(이상익, 2001: 292). 일반적으로 유교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의 도라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자기도야를 바탕으로 한 평천하의 이상을 가지고 있다. 이는 윗사람의 술선수범에 의해 아랫사람이 교화되고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성선설에 근거하고 있다. 덕치가 백성의 현실적 삶에 대한 향상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충분히 현실정치의 제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근거를 가지게 된다.

덕치주의는 공자의 “정치는 덕으로 행한다”(爲政以德)는 사상을 바탕으로 전개되어 맹자에 의해 크게 주창되었다. 다시 말해서 공자의 덕치주의를 기반으로 하여 더욱 발전된 것이 맹자의 민본주의인 것이다. 공자는 정치를 ‘복극성’과 ‘못별’의 관계에 비유하여³⁾ 사람들의 내면에 호소하는 ‘덕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다. 그리고 공자는 전인격적인 의미로 군자 교육의 최고의 덕목인 인(仁)과 광범위한 의미로 각종 예절과 의식의 규정일 뿐만 아니라 나라와 근본 질서를 유지하는 정치제도와 통치 질서까지 의미하는 예를 통해 인정(仁政) 즉 예치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요컨대 공자는 ‘덕’과 ‘예’로 백성을 다스리기를 주장하고, 인의 도덕을 정치로 실현하고자 하였다(조현규, 2002: 48). 이와 같이 공자는 덕치와 예치를 통해 주례를 재건하고, 사회질서를 회복함으로써 백성들이 편히 생업에 종사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의도를 피력하였다고 하겠다.

2) 맹자의 민본주의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발전시켜 덕치주의를 주장하고, 민본주의의 요소가 결집된 왕도정치를 역설하였다(배원달, 1989: 349). 왕도정치는 공자의 예와 맹자의 의가 결합된 덕치주의를 근간하여 성립한 민본주의에 입각한 정치형태이다. 따라서 민본주의는 덕치주의와 왕도정치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게 된다.

‘민본’이라는 단어는 『書經』의 다음 구절에서 언급된 “백성이 오직 나라의 근본”을 축약한 말에서 비롯되고 있다(유교사전편찬위원회, 1990: 470-472) “아버지께서 훈계가 계셨나니 백성들은 가히 가깝게 할지언정 알잡아 보면 안 되는 것, 백성은 오직 나라의 근본이니 굳어야 나라가 편안해진다.”⁴⁾

민본주의는 맹자에게는 덕치주의와 결합되고, 그러한 결합은 맹자의 왕도론(王道論)과

3) 《論語》, <爲政>, 「子曰, 爲政以德, 譬如北辰, 居其所, 而衆星共之。」

4) 《書經》 <夏書> 「五子之家, 其一日黃祖有訓, 民可近 不可下, 民惟邦本 本固邦寧。」

인정론(仁政論)에서 명확해진다(안병주, 1987: 5). 이러한 덕치와 민본의 상호조화성을 쉽게 인정할 수 있는데, 왕도론·인정론에 나타난 덕치주의는 통치자의 윤리이고, 貴民論·革命論에 나타난 민본사상(통치대상으로서의 민의 객체성만을 강조하는 입장이 아니라면)은 정치구조상 민의 주체적 지위를 지시한 것이다(금장태, 1987: 11). 따라서 덕치주의는 맹자에 의해 민본주의와 결합되고, 정치형태로 왕도정치로 제시되었다.

맹자의 민본사상은 ‘백성이 귀하고, 사직은 그 다음이며, 임금은 가벼운 것이다’<盡心章句 下>라는 말로 대표된다. 맹자는 민귀경군(民貴輕君)의 관점을 명확히 제기하고 백성이야말로 국가의 보배라고 하여 춘추시대의 중민사상(重民思想)을 크게 발전시켰다. 그의 민본사상에서는 중민뿐만 아니라 폭군방벌까지도 인정하였다(최무중, 1998: 9).

맹자는 이전의 유가들이 주창한 민본사상과 천명사상을 왕도정치 실현을 위한 애민·중민사상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여민동락(與民同樂)’을 제시하였다. 통치자는 여민동락의 방법을 깨닫고 실천하지 않으면 안된다(김길환, 1981: 88). 이와 같이 맹자는 참다운 왕자(王者)는 백성과 함께 즐거움을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민본주의는 군주와 집권계층이 지향하여야 할 대표적인 유교의 정치사상이자 정치이념으로, 본질적으로 인간의 양심과 인격의 존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편 왕도정치는 실질적으로 민본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치형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인의를 중심으로 하여 ‘왕도정치’를 피력하였다. 이러한 왕도정치는 공자와 맹자를 거쳐, 한대(漢代) 이후에는 대표적인 유교 정치사상의 기본내용으로 정립되게 되었다. 그리고 지배계층이 민을 두렵고 가엽게 여기는 마음 즉 인애사상이 덕치주의나 왕도정치와 결합된 형태가 ‘인정(仁政)’인 것이다. 인정과 관련하여 ‘불인인지심(不忍人之心), 측은지심(惻隱之心)⁵⁾’ 등이 있는데, 이러한 내용은 근대 사회복지 이념과 관련된다. 그렇지만 민본주의는 인간의 주체적 가치가 존중되지 못하고, 개인의 인격이 인정받지 못하는 시대에 있어서 민본주의와 관련되는 덕치주의와 왕도정치는 매우 계몽적인 인도주의일 수밖에 없다(이동준, 1997: 35). 그렇기 때문에 민본주의는 민을 정치의 자율적 주체가 아닌 자비롭게 가르치고 먹여 살리고 보살펴야 하는 대상으로 인식한 점에서(김형효 외, 2000: 245) 계몽적인 인도주의라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하는 과제 또한 갖고 있다.

5) 惻隱之心은 인간의 생도로서, 사람이 만물을 낳을 수 없으므로 생명을 차마 해치지 못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의 生物之心인 것이다(이기동·최영진, 1996: 224).

3) 공·맹 정치사상의 목적

공자와 맹자는 인간의 도덕성을 인정해 인의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왕도정치 사상을 주장했다. 유교에서는 정치체(政治體)의 궁극적 목적을 백성의 교육에 의한 인간다운 삶의 실현으로 규정하였다. 그런데 그것을 실천함에 있어서는 교육보다 생계의 보장을 우선적인 과제로 설정한다. 정치·경제적인 안정을 기했을 때 모든 백성이 의롭고 선하게 하는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유무상, 2000: 326). 이는 교육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실현이라는 ‘이상적인 목표’도 의·식·주 등에 관한 현실적인 조건에 의해 제약을 받는다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

실제로 공자와 맹자가 생존한 시대에서는 피지배계층에 속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최소한의 인간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부와 사회적 안정이 미처 확보되지 못한 채 방랑과 방황의 생활을 하고 있었다(이석규, 1994: 45). 이러한 시기의 정치의 과제는 백성이 먹고 입고 사는 데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최소한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자는 사회가 지향해야 할 공동선으로서 ‘경제적 부(足食), 국방력(足兵) 및 인간의 신뢰(民信之)’를 제시했다. 공자는 백성을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富之)을 백성을 교육시키는 것(教之)보다 앞세웠다. 그 중 의식주문제와 관련된 경제문제는 인간생존에 직결되는 기본적인 사항이었다. 공자가 중시한 민의 경제적 안정은 민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수단(教)이라는 성격을 띠었다(유병용 외, 2002: 41). 이와 관련하여 공자는 “적절한 때를 택해서 백성을 동원해야 하며”⁶⁾, “군자는 그 백성을 기르는데 은혜롭고 그 백성을 부리는 데 의로워야 한다”⁷⁾ 언급함으로써 백성을 사랑하고 보호해야 하며 백성을 동원하고 부리는 데 절도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민의 생활에 대해 많은 배려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맹자는 공자의 이러한 생각을 발전시켜 “백성을 기른다”(養民)는 사상을 전개하고, 이어 ‘보민(保民)’정책을 제시하였다. 위정자는 적극적인 것으로는 민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고 이들을 도의로써 가르치며 소극적인 것으로는 형벌을 줄이고 세금을 감소시키며 전쟁을 삼가는 것이다(유병용 외, 2002: 42).

이와 같이 공자와 맹자는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왕도정치의 기초 내지 목적인다고 봄으로써 왕도정치를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시키고 있다. 그리하여 공·맹 정치사상의 핵심인 왕도정치의 전제조건으로 하나로 민에게 일정한 부가 갖추어져야 민이 선을 행

6) 《論語》 <學而> : 「子曰 道千乘之國 敬事而信, 節用而愛人 使民以時。」

7) 《論語》 <公治長> : 「自謂子產 有君子之道四焉 其行己也恭 其事上也敬 其養民也惠 其使民也義。」

하고 예의를 갖게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공자와 맹자와 같은 선진 유가들은 “경제적 조건이 악화되면 도덕심이 없어지며, 민이 못할 짓이 없다”고 바라보는 등 경제적 안정을 삶의 기본조건으로 인식하였다. 유교는 민의 경제적 풍요로움의 확보를 인간 삶의 필요조건으로 인식하였지만,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았다(조남욱 외, 1999: 57-56).

민의 경제적 안정에 대한 중시는 ‘항산항심론(恒産恒心論)’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맹자는 백성에게 변치 않는 마음(恒心)을 요구하기 전에 안정된 생업(항산)을 보장해 주라고 주장하였다. “백성들에게 뗏뗏이 살 수 있는 생업(항산)이 없으며 이로 인해 뗏뗏한 마음(항심)이 없어지게 된다”⁸⁾는 인용문에서 백성의 본성을 회복하는 데는 일정한 경제적 기반이라는 항산을 주어 민생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생활근거(항산)란 재산뿐만 아니라 넓은 의미에서 생업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제적 기초에 관련하여 쟁점이 되는 문제로는 토지문제, 부역문제, 세금문제, 사농공상의 분업문제, 국가의 민간경제에의 관여문제 등이 포함된다(김형효 외, 2002: 222). 이러한 쟁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이 공평한 토지분배인 것이다.

또한 공자와 맹자는 생산뿐만 아니라 분배의 측면에도 관심을 보여 부의 균분이 필요함을 설명하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적(赤)이 제나라에 가는데 살찐 말을 타고 가벼운 가죽옷을 입었으니, 나는 들으니 군자는 공박함과 족하지 못한 것만 도움을 받을 뿐, 부를 지속시키려 하지 않는다.”⁹⁾ 이러한 구절은 지배계층의 부의 독점 내지 편중을 경계한 말로써 부의 균분을 강조하고 있다. 공자는 부의 편중을 경계하였으며, 맹자는 분배상의 평등뿐만 아니라 생산상의 분업의 필요성¹⁰⁾을 거론하였다. 맹자는 농부와 도야, 지배자와 피지배자들이 생업을 분담해야 하며, 서로 교역을 통해 구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맹자의 견해는 직업귀천의 의식보다는 직업 간의 상호 분업적이고 보완적인 관계를 강조하고, 분배에서의 균분과 마찬가지로 생산노동에 있어서의 평등사상을 내포하고 있다(이영찬, 1998). 그리고 유학에서 구휼사업을 통해서 민생고를 해결하고 그리고 불우한 사람을 구제하려고 하였다.

요컨대 공·맹 정치사상은 인간의 도덕성을 인정해 인의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왕도

8) 《孟子》 <梁惠王章句 上> : 「若民則無恒産 因無恒心」

9) 이와 관련하여 공자는 “군자는 공박함과 족하지 못한 것만 도움을 받을 뿐, 부를 지속시키려 하지 않는다”고 했다. 《論語》 <雍也> : 「...吾聞之也, 君子周急, 不繼富」

10) 이와 관련하여 맹자는 “... 대인의 일이 있고 소인의 일이 있다. 또 한 사람의 몸에 백공의 일이 구비되어 있으니, 만일 반드시 자기가 만든 뒤에야 쓴다면 이는 천하 사람을 거느리고 길로 분주히 왕래하게 하는 것이다.”고 했다. 《孟子》 <滕文公章句 上> : 「... 有大人之事, 有小人之事, 且一人之身, 而百工之所爲備, 如必自爲而後用之, 是率天下而路也。」

정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인간이 각자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세계를 이룩하고자 하였다. 유학에서는 일찍이 그러한 이상사회의 전형을 ‘대동사회’로 설정하고 그 실현을 각 시대마다 시도했다. 대동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덕성을 발휘하여 낙오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이 평등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대동사회를 지향하는 공·맹 정치사상은 민의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3. 순자의 예치주의

순자가 추구한 이상정치도 전통적인 유가사상에 근거한 왕도정치이다. 순자에 의하면 이상정치를 구현하는데 있어서 예는 최소한의 규칙내지 도덕으로 요구되었다. 예는 중국 고대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으로 종교의식·정치제도·일상생활 규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김충렬, 1994: 109-110), 고대 중국인들 문화의 종합체인 것이다(加藤常賢, 1943: 46). 유가적 통치관인 덕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치는 공자에 의해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순자에 의해 체계화되었다(전세영, 1996: 5). 예치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각기 다른 인간들의 무한한 욕망과 사회경제적 재화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해소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순자에 의하면 예는 인간육구에서 비롯되었고, 성인이 그것을 제정하였다고 한다. 예에 근거한 예치주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에 대한 다각적 고찰을 필요로 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용한 예의 기능과 목적 등으로 한정하였다.

1) 예의 기능

대부분의 학자들은 순자사상에서 예의 기능을 양절분(養節分)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分)을 들고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분은 예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므로,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순자는 인간들이 같이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충돌하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은 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사람은 태어나서 사회를 이루어 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사회를 이루어 살면서 나눔이 없으면 다투게 되고, 다투면 혼란해지며,

혼란해지면 곤궁하게 된다. 그러므로 나눔이 없는 것은 사람의 큰 재앙이고 나눔이 있는 것은 천하의 큰 이익이다.”¹¹⁾ 이러한 인용문에 의하면 분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간사회에서 필요한 것이다. 인간사회의 유지를 위해 통치자는 분을 명확히 하고 다툼을 방지하여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다.

분의 의미를 분명하고 있는 편이 『榮辱』篇이다. “선왕은 예의를 만들어 인간 사회에 여러 가지 나눔이 있게 하였다. 귀천의 차등이 있게 하였고, 장유의 차이가 있게 하였으며,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을 구분하였고, 능력과 무능력을 구분하였다. 그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의 임무를 맡도록 하되 자기에 알맞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런 후에 봉록의 많고 적음이 알맞게 분배되도록 각별히 주의했다.”¹²⁾ 이러한 인용문에 의하면 예의 분에는 귀천으로 대표되는 사회등급, 장유로 대표되는 사회윤리, 지우능불능에 따라 주어지는 사회직분 등이 있다.

요컨대 예의 분은 정치적 지위의 분배, 경제적 재화의 분배, 및 윤리의 구분 등에 적용되며, 중국적으로 사회적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 규범이라는 외부적 형식을 통한 사회 통제와 관리라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게 된다고 하겠다.

2) 예의 목적

순자사상에서 제기되는 ‘군거화일지도(群居和一之道)’¹³⁾ 내지 ‘지평(至平)’¹⁴⁾이라는 이상사회의 도는 예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의 목적은 군거화일지도와 지평과의 관계에서 고찰되어야 한다. 그 양자의 관계를 단적으로 말하자면 순자가 추구하는 이상사회라고 할 수 있는 지평의 사회의 원리가 군거화일지도인 것이다.

군거화일의 도란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서 하나로 조화되는 도이다. 순자는 「군거화일지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천자처럼 귀해지고 온 세상을 차지할 만큼 부유해지는 것은 사람들의 성정으로서 다 같이 바라는 바이다. 그러니 사람들의 욕심을 따른다면

11) 《荀子》 <富國> : 「人之生, 不能無群, 群而無分則爭, 爭則亂, 亂則窮矣. 故無分者, 人之大害也, 有分者 天下之本利也.」

12) 《荀子》 <榮辱> : 「故先王案爲之制禮義以分之, 使有貴賤之等, 長幼之差, 知愚能 不能之分. 皆使人載其事而各得其宜, 然後使穀祿多少厚薄之稱.」

13) 《荀子》 <榮辱> : 「夫貴爲天子, 富有天下, 是人情之所同欲也. 然則從人之浴, 則勢 不能容, 物不能贍也, 故先王案爲之制禮義以分之, 使有貧賤之等, 長幼之差, 知遇能 不能 之分, 皆使人載其事而各得其宜, 然後使穀祿多少厚薄之稱, 是夫群居和一之道也.」

14) 《荀子》 <榮辱> : 「故仁人在上, 則農以力盡田, 賈以察盡財, 百工以巧盡機器, 士大夫以上至於公侯, 莫不以仁厚知能, 盡官職, 夫是之謂至平.」

곧 형세는 그 욕심을 다 받아들일 수가 없고 물건은 충분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옛 임금들은 생각 끝에 이를 위해 예의를 제정하고 분별을 마련해, 귀하고 천한 등급이 있게 하고, 어른과 아이의 차별을 두게 하고, 지혜 있는 이와 어리석은 자와 능력 있고 능력없는 사람의 분별을 마련하였다. 언제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일을 맡아 하게 함으로써 각자 그에게 합당한 일을 갖게 하였다. 그러한 뒤에야 녹으로 받는 곡식이 많고 적고 두텁고 얇은 균형이 있게 되었다. 이것이 곧 여러 사람이 모여 살면서 하나로 조화되는 도이다.”

지평이란 사회 내의 모든 신분계층이 각자의 지위에 따라 충실히 생활하는 것이다. 순자는 「지평」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어진사람이 뒤에 있으면 농부는 밭가는 일에 힘을 다할 것이고, 상인은 명찰로써 재화를 다할 것이고, 백공은 기술로써 기기를 다할 것이고, 사대부는 위로부터 공복에 이르기까지 인후와 지능으로써 관직을 다할 것이다. 무릇 이것을 지평이라 한다.”

지평의 사회는 사회적 분화가 잘 이루어져 각 구성원들이 자신의 재질과 능력에 따라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히 한 연후에 그에 부응하는 몫이 공평하게 분배되는 사회이다. 그러한 사회를 구성하는 원리인 균거화일은 인간 간의 무한한 이기적 욕망과 유한한 물질적 대상 간의 긴장을 해소하고, 귀천, 장유, 현불초, 능불능의 분화에 따른 역할의 분담과 그에 따른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인 것이다. 순자의 이상사회는 지평을 통해 차별은 있지만, 조화와 화합을 이루면서 평등을 지향하게 되고, 그리고 균거화일을 통해 다양하게 분화된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게 된다.

그런데 지평과 균거화일은 평등의 관념에 있어 동기적 평등 내지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평등의 관념은 계급제도를 확립하여 각자가 그에 상응한 사회적 업무를 부여받고 그 지위에 따라 서로 상이한 경제적 대가를 부여받도록 하는 것이다(小島祐馬, 1968: 73-74). 지평과 균거화일이라는 사회구성의 원리는 사회계급에 따른 차별을 통한 이상사회의 건설이라는 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준다.

순자사상에 있어서 공리주의의 근거는 자연관과 인간관 그리고 성악론 등에서 나타나 있다¹⁵⁾. 순자의 자연관과 인간관은 하늘의 권위로부터 해방된 합리적이고 과학적 인식에 의해 개진되었다. 순자는 자연과 인간을 대등한 위치로 놓고 경우에 따라선 인간은 자연을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처럼 순자의 자연관과 인간관에는 공리적인 측면과 더불어 합리적이고 진보적인 측면이 나타나 있다. 그리고 순자의 성악론에 의하면 악한 성

15) 순자 정치사상이외의 공리주의는 순자사상의 자연관과 인간관 그리고 성악론 등에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양정하(2012: 263-28) 참조할 것.

품은 교화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이지를 통해서 거친 본성을 수련의 과정을 거쳐 성숙되고 순화된 인격으로 개조되는 것이다. 인간의 사회를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서 인의법정 혹은 예의의 학습과 그것의 내면화를 필요로 한다는 것은 공리주의의 사고인 것이다.

예에 의해 사회적 재화를 충족시켜 이상사회를 건설한다는 예의 목적은 사회를 위한 제가치의 권위적 배분과도 관련되게 된다(정연식·조현걸, 1987: 80). 이는 이른바 공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순자의 사회분업론에서 보다 분명해진다.

“조정에서는 반드시 예의를 존중하고... , 백관의 경우에는 반드시 제도를 정비하고... , 공인들에 있어서는 때맞추어 나무를 베고... , 사대부가 직분을 생명으로 알면... , 백관이 법을 두려워하고 조례에 복종하면... , 상인이 정직하면... , 공인이 진실하게 물건을 만들어 내면... , 농민인 오로지 순박하여 근면하면...”¹⁶⁾

요컨대 예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물질생활을 최대한 만족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욕망을 분을 통해 절제하고, 중국적으로 유교의 이상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자가 자기의 분수를 지키며 공동으로 일정한 질서를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4.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

1) 사회정책의 핵심영역에 대한 시사점 제공

사회정책은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라 발생한 제반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색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정책은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 자립 및 사회통합이란 목적을 가지게 된다. 자립과 사회통합이라는 목적들은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의 보장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복지 또는 경제적 보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다. 인간다운 최저생활의 보장이라는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현대 복지국가는 최소한의 사회보장, 완전고용 그리고 혼합경제 등을 운용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이 관여되는데, 이들 정책

16) 《荀子》 <王霸>: 「朝廷必將隆禮義... 百官則將齊其制度... 百工將時斬伐... 士大夫 務節死制... 百吏畏法遵繩... 商賈敦慤無詐... 百工忠信而不樞... 農夫朴力而寡能」

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서 경제정책은 대체로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하여 행하는 국가의 생산·유통·분배의 과정에 대한 제 정책의 총체이다. 그러나 사회정책은 종래에 있어서 자본이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이윤을 안정적으로 획득하기 위한 국가의 사회개량 정책이었다(岸本英太郎, 1968: 45). 그렇지만 오늘날 복지국가 체제에서 전개되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를 보건대, 일반적인 경제정책의 구조 속에 복지국가의 경제적 기반으로서의 ‘혼합경제 체제’의 특징과 연관하여 사회정책이 전개된다. 그렇다 보니 복지국가의 제 정책 중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경계는 점차 불명확해져 양자의 중첩과 유착의 정도는 더욱 더 심화되게 되었다. 더욱이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구별은 상대적이고 개념적인 것이다(신섭중, 1993: 49-59). 그래서 복지국가 체제는 국민의 복지실현을 위해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종합적인 대처를 필요로 하고 있다.

사회정책의 영역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그들의 견해를 정리·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즉 사회정책을 좁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등 4개 영역으로, 넓게 해석하면 소득보장, 건강, 주택, 대인적 사회서비스, 교육, 조세정책, 노동정책 등 7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양정하 외, 2008: 60-61).

사회정책의 영역과 관련하여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공·맹 정치사상에서는 ‘민본주의’에 입각한 왕도정치는 인류의 사회에 있어서 민생의 안정과 인간다운 삶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백성의 민생의 확실한 보장 다시 말해서 물질적인 경제적 요소의 확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 요청된다. 이와 같이 공·맹 정치사상은 경제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민의 경제적 안정뿐만 아니라 부의 균분을 강조하는 경제정책을 중시하고 이러한 경제정책을 통해 민생 안정과 민생의 경제적 기반의 제공을 꾀하였다. 공·맹 정치사상은 인간의 도덕성을 인정해 인의의 실현을 이상으로 하는 왕도정치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모든 인간이 각자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민의 경제적 안정과 인의의 실현이 필요하였다. 그렇다고 한다면 공·맹의 정치사상은 무엇보다도 민의 경제적 안정을 겨냥하는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뒤이어 인의 실현을 위한 교육정책을 강조하였다. 그렇지만 공자와 맹자가 구현하고자 하는 그러한 이상이 제대로 구현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김형효 외, 2000: 225).

순자의 정치사상의 기본이 되는 인성론에 의하면 사람의 악한 성품은 성인이 만든 인의

법정 혹은 예의를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교화될 수 있다. 이러한 교화에는 절대적으로 사법 예의를 통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교육은 특히 성인(聖人)의 역할이 강조되는 예치 내지 예론에 있어서 핵심적인 국가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이 순자 정치 사상은 사회정책의 영역에 있어 교육정책을 우선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순자는 상/하 또는 군주/기층민 간의 호혜적인 관계에 입각해서 먼저 민생경제의 안정과 국부를 강조하였다. 따라서 순자의 정치사상에서는 교육정책과 더불어 “기층민의 경제적 안정이 곧 국가 부강의 원천”이라는 ‘민생경제 우선의 원칙’에 입각한 경제정책도 중시되었다.

이상에서 공·맹 정치사상은 인간다운 삶의 보장이라는 경제적 보장을 국가정책의 주요한 목표로 상정하였다. 공·맹 정치사상은 경제적 복지 내지 경제적 보장의 강조라는 경제 정책과 뒤이은 교육정책을 중시하고 있다. 반면에 순자 정치사상은 국가정책 내지 사회정책의 영역 중 교육정책을 강조하고 뒤이어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선진유가 정치사상 공히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을 중시하였는데, 그러한 정책들은 사회 정책의 영역과는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특히 순자가 중시하는 교육정책은 사회정책의 핵심 영역 중에 하나이고, 공자와 맹자 역시도 이를 중시하고 있다. 공·맹의 정치사상과 순자의 정치사상은 사회정책의 영역에서는 교육정책과 경제정책을 중시하지만, 그것의 우선순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교육정책과 경제정책에 대한 우선순위는 시대와 국가의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그 정책들은 여전히 사회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정책과 사회정책들은 복지국가로 지향하기 위해서는 국가정책의 순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복지국가 건설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회정책의 핵심 영역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2) 사회정책 가치의 제한적 공유

사회복지의 가치¹⁷⁾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정책의 주된 가치이념으로 ①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②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주의, ③ 사회적 공정과 효율, ④ 소셜 미니멈(social minimum) 등을 꼽고 있다(신섭중, 1992: 99).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최저한 생활을 보장한다는 사회정책의 목적은 자유, 평등, 공평, 적절성, 효과성 및 효율성이라는 사회정책의 가

17) 사회복지(사회사업)의 가치는 ① 인간존엄과 주체성의 존중, ② 평등주의에 입각한 사회연대, ③ 인간애에 의한 상부상조의 에토스(ethos), 그리고 나아가서는 ④ 각자의 발달가능성의 최대한의 실현 등을 꼽고 있다.

치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한 가치 중에서도 공평은 기본적으로 평등의 개념에 속하는 것으로 ‘비례적 평등’이라고 하여 능력에 따른 공평한 대우를 의미한다(양정하 외, 2008: 123). 사회정책의 목적과 관련된 사회정책의 가치로는 인간 존중 내지 인간존엄, 그리고 최저생활의 보장이 있는데, 그것들은 각각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평, 적절성, 효과성 및 효율성 등과 관련된다.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상기의 사회정책의 가치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공·맹 정치사상은 국가와 지배층에 의한 ‘민을 위하는’ 태도 및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민을 위하는 태도와 정책은 “인자하게 사랑하는 마음¹⁸⁾”(仁愛之心)과 “남에게 잔인하게 대하지 못하는 마음¹⁹⁾”(不忍人之心)에서 기인한다. 그러한 태도와 정책은 환과고독(鰥寡孤獨)에 대한 구휼정책으로 구체화 된다. 이와 같이 ‘민을 위하는’ 태도와 정책은 인에 기초한 인간애의 발현으로서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 인격의 숭고함, 인간의 자기실현, 인간 완성 그리고 사회정의 등을 유추해 볼 수 있다(김중서 외, 1990: 80-85). 공·맹 정치사상이 강조하는 인애지심과 불인인지심 등은 기본적으로 인간존중 내지 인간존엄에 근거하고 있다. 그리고 환과고독에 대한 구휼정책도 기본적으로 국가정책이지만, 인간존중에 입각한 것이다. 따라서 공·맹 정치사상은 인간존중 내지 인간존엄에 근거하고 있는데, 그것은 근대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제한적인 의미의 자유와 평등에 해당된다. 공·맹 정치사상은 제한적 의미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사회정책의 가치와 공유하고 있다.

순자의 예치주의를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이상사회는 사회계급과 그에 따른 차별을 통해 사회를 균등화하고, 그리고 사회적 재화를 충족시키는 사회인 것이다. 순자의 이상사회는 사회원리라고 할 수 있는 지평과 균거화일에 근거하고 있다. 특히 균거화일은 동기적 평등 내지 상대적 평등, 비례적 평등 내지 공평에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균거화일 내지 지평 등에 내재되어 있는 비례적 평등은 사회계급과 차별을 통해 사회를 균등화하게 된다(전세영, 1996: 7-8). 이와 같이 순자의 정치사상은 공평이라는 사회정책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공·맹 정치사상과 사회정책은 자유와 평등을 기반으로 하는 인간존중이라는 사회정책의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와 공·맹 정치사상의 핵심인 민본주의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맹 정치사상은 현대적 의미의 자유와 평등과 갖는다고

18) 《孟子》 <梁惠王章句 上> : 「言舉斯心加諸彼而已」

19) 《孟子》, <公孫丑 上>, 「人皆有不忍人之心, 先王有不忍人之心, 斯有不忍人之政矣, 以不忍人之心, 行不忍人之政, 治天下可運之掌上」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순자의 정치사상과 사회정책은 균거화일과 지평이라는 이상사회의 원리에 있어서 사회정책의 가치인 공평 내지 비례적 평등과 공유하고 있다. 다만 비례적 평등에 관련되는 내용은 해당사회의 자원의 보유정도와 민주주의 실현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다.

요컨대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제한적이거나 인간존중 내지 인간존엄이 근거하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평이라는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선진유가 정치사상을 포함하는 유교 정치사상에는 반민주적이거나 비민주적인 특성들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다. 유교 정치사상이 갖고 있는 이런 전근대적인 측면들은 과감하게 제거되어야 한다(홍승표, 2005: 120). 이러한 맥락에서 유교사상가들의 덕치주의 사상이 현대 도덕정치로의 수용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의 창조적·비판적 계승이 필요하듯이(최무중, 1998: 258), 선진유가 정치사상에 내포되어 있는 사회정책의 가치도 그러한 과정을 거쳐 검토되어질 때,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3)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 제고

일반적으로 사회정책의 대표적인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고, 그것의 대상도 자본주의 발전에 따라 제한적 요보호자에서 전체 국민으로 확대되었다. 사회정책을 통해 건설하고자 하는 복지국가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사회복지 이른바 국가복지를 가지고 있다. 복지국가의 특징으로는 ① 경제제도로서의 자본주의, ② 정치제도로서의 민주주의, ③ 개인의 복지에 관한 국가의 막중한 책임 등이 있다(신섭중, 1993: 57). 이와 같이 국가복지는 세 번째에 해당되는 복지국가의 특징인 것이다.

복지국가의 사상적 토대로는 프랑스 혁명, 공리주의, 비스마르크(Bismark), 비버리지(Beveridge), 페비안사회주의, 토니(Tawney), 케인즈(Keynes), 웹(Webb)부처, 홉하우스(Hobhouse), 및 티트머스(Titmuss) 등을 꼽고 있다(Robson, 1976: 11). 이러한 토대 중의 하나인 공리주의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the greatest happiness of greatest number)” 라는 목표를 표방하였는데, 이러한 공리주의를 바탕으로 구축된 복지국가는 국민에 대한 최대행복 즉 최대복지의 보장을 실현할 수 있었다. 공리주의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중엽에 걸쳐 당시의 형이상학적 차원에서 벗어나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사회와 국가의 행복 즉 국민들에 대한 복지의 증진을 주장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사상적 토대로 되었다.

복지국가의 국가복지와 공리주의라는 맥락에서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의미를 파악하고자 한다. 공·맹 정치사상에 의하면 국가는 가장 넓은 의미의 가족이며, 개인과 가족의 안녕을 보장해 주는 가장 궁극적이고 확실한 대상인 것이다. 공·맹 정치사상이 통치 이념이 된 전통사회의 구제대상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예측하기 어려운 위협이었다. 이러한 대상에 대해서 가족공동체 그리고 국가가 공공의 선이라는 입장에서 창(倉), 진대(賑貸), 환곡(還穀)과 구황(救荒)과 같은 구휼제도들이 시행되어 왔다. 유가 복지에서는 국가는 공동체가 올바른 복지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며, 공동체에서는 빈곤계층과 공동생산을 하면서 그들의 자립을 도와주는 형태로 국가, 공동체, 생산이 융합된 복지모형인 것이다(정병석·권상우, 2012). 이러한 모형에 있어서 사회복지의 시행방법으로는 공동체를 통한 사회복지, 공동체적 연대강화 그리고 국가의 직접개입 등이 있다(박승희, 1999). 실제 국가가 복지공급의 주체가 될 수 없었던 조선시대에 가족과 공동체로 하여금 복지의 재원 마련과 제공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하도록 추동하였던 조직 원리와 작동기제는 유교의 가족주의인 것이다(최연식·임유진, 2011). 그렇지만 유교사상에서는 가장 넓은 의미의 가족이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정책의 대표적인 주체가 국가로 간주해도 무리가 없어 보인다.

유교 사회에서 복지의 문제는 대가족공동체 내에서 자체적으로 해결되지만, 가족이나 친척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해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을 경우 사회 또는 국가의 복지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일시적인 구휼보다는 생산의 장려 등을 통한 좀 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높이 평가하지만, 흉년 등으로 백성들이 생계를 위협 당한 때는 국가가 백성을 직접 구휼하였다.

그런데 공·맹 정치사상에서는 국가가 민의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 생활을 보장·보호하는 민생구휼과 같은 국가복지가 대표적이고 핵심적인 복지활동인 것이다. 실제로는 국왕은 선정 또는 인정과 같은 도덕정치의 실현을 위해 민생구휼의 책임을 계속 담당해 왔다(양정하, 2003: 33). 이러한 민생구휼은 국가의 보호의 형태로 잔여적 복지에 해당된다.

유가는 공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공리를 궁극적 가치로 설정하는 공리주의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한다. 유가의 일반론은 공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의이다(이상익, 2001: 351). 공리주의에 대한 비판을 견지한 순자는 공리는 인륜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의리(義利)에서 의를 강조하였다. 義의 강조를 통해 인간은 성인이 만든 인의법정 혹은 예의를 학습하고 내면화함으로써 자신의 성품을 교화하게 된다. 이를 위해 예론이나 예치가 필요

하고, 그것은 인간의 사회를 인간답게 만들기 위해 최소한 규칙내지 도덕의 요구인 것이다.

그렇지만 공리주의 입장은 순자의 정치사상에서도 곳곳에서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예의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에는 귀천으로 대표되는 사회등급, 장유로 대표되는 사회윤리, 지우능불능에 따라 주어지는 사회직분 등이 있다. 이것은 정치적 지위의 분배, 경제적 재화의 분배, 그리고 윤리의 구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 공리주의에 입각한 것이다. 심지어 공리주의적 입장은 순자에게는 패도에 대한 긍정으로 표출되었다. 물론 전국시대의 천하통일과 민생구제를 위해서는 ‘왕도’이외에 무력을 배경으로 한 ‘패도’도 가능하다고 하는 순자의 신념과 주장은 난세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공리적인 입장이 반영된 것이다. 그렇지만 순자는 인의를 추구할 때 공리가 크게 실현된다고 보았다.

공·맹 정치사상에서는 복지구현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국가에 있었지만, 실제 국가가 모든 것을 담당하지 않고 복지정책에 있어서는 공동체에서 다루도록 유도하였다. 그렇다 하더라도 유가의 국가복지는 군주가 반드시 행해야 할 가장 근본적인 목표인 것이다. 공·맹 정치사상이 지배적인 전통사회에서는 사회복지제도는 구휼제도와 같은 주로 잔여적 개념에 입각하다 보니, 그 형태에 있어서도 각 사회의 환경에 따라 간헐적·부분적·일시적 형태를 띠었다(유병용 외, 2002: 194). 그러나 복지국가의 사회복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사회를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 사회제도라는 제도적 개념에서 다루어지는 경향이 강하다. 이와 같이 복지국가와 유교 정치사상의 국가복지는 잔여적 개념의 정도에 따라 구별된다.

그리고 순자 정치사상에는 사회와 국가의 행복 즉 백성들에 대한 복지를 주장하는 복지국가의 사상적 토대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공리주의적 입장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거기에는 전국시대라는 시대적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복지와 사회와 국가의 행복을 주창하는 공리주의적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복지국가의 전제조건과 사상적 토대에 해당되는 것으로,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진다고 하겠다.

4) 복지사회 모색에 대한 단초제공

공·맹 정치사상이 지향하는 대동세계란 만민의 신분적 평등과 재화의 공평한 분배, 그리고 인륜의 구현을 특징으로 하는 유교의 이상사회를 지칭하며, 외적 강제성보다는 인간의 자

율성에 기초한 복지사회를 이상적 사회로 인식하고 있다(유병용 외, 2002: 46-47). 대동세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禮記》 <第九編 禮運>에 실려 있다.

공자가 말한다. “큰 도가 행해진 일과 三代의 俊英은 내가 아직 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기록한 것은 있다. 큰 도가 행해지면 천하를 공으로 하여 어진 이를 뽑고 능한 자를 골라, 신을 강구하고 화목함을 닦는다. 그런 연유로 사람들은 유독 그 부모만을 부모로 여기지 않고, 유독 그 아들만을 아들로 여기지 않았다. 늙은이로 하여금 마칠 곳이 있게 하고, 젊은이로 하여금 쓰일 곳이 있게 하며, 어진 이로 하여금 자랄 곳이 있게 하고, 흠아비·과부·부모 없는 고아·자식 없는 외로운 사람과 병든 사람들이 모두 보살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남자에게는 일정한 직분이 있고, 여자에게는 시집을 갈 곳이 있었다. 재물은 그것을 땅에 버리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감추어 두지 않았으며, 힘은 그 몸에서 내지 않는 것을 미워하지만 반드시 자기만을 위해서 쓰지 않았다. 그런 까닭에 간사한 꾀는 달혀 생겨나지 않고 도절(盜竊)과 난적(亂賊)은 일어나지 않는다. 때문에 바깥문을 닫지 않고 안심하고 생활한다, 이것을 대동이라고 한다.²⁰⁾”

홍승표(2005)는 유교적 관점에서 이상사회를 도의적 사회로 상정하고, 그 사회를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하고 있다. “도의적 사회는 인간의 내면에 존재하는 도의성이 발현되고, 상호 존중과 신뢰로 맺어지며 그리고 사회적 약자도 강자와 마찬가지로 존중받고 대접받는 사회”인 것이다. 이러한 이상사회는 인간다운 삶과 도덕적인 사회 건설을 전제로 모색될 수 있다.

대동세계에서는 노동능력이 있는 자를 노동에 종사할 수 있게 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노인이나 어린이를 일종의 사회보장제도에 의해 잘 부양하도록 하며, 그리고 자기 부모나 자식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널리 사랑을 베풀도록 한다. 그러한 세계에서는 천하 사람에게 비록 각자의 국가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한 형제같이 서로 친하고 집집마다 재물이 풍부하여 생활은 항상 안정적이며, 더 나아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한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지향해 나갈 것이다(김철운, 2005: 117). 이와 같이 대동세계 내지 대동사회는 철저한 공동체적인 인간관계를 바탕으로 모든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잘 보살핌을 받고 보람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사는 세상인 것이다.

이처럼 대동사회는 유교적 복지국가의 이상으로 현인²¹⁾에 의해 신의와 화목의 생활원

20) 『禮記』, 《第九編 禮運》 「昔者仲尼,……故外戶而閑,是謂大同。」

리가 실현됨으로써, 상호애호와 상부상조하는 기풍이 충만하며, 사회보장이 제도적으로 확립되는 일종의 복지사회인 것이다(윤사순, 1990: 123-124). 이러한 복지사회는 사회보장과 완전고용뿐만 아니라 도덕적 만화(萬貨)를 강조하고, 민주주의적·문화주의적·인간주의적 요소를 갖고 있어(최무중, 1998: 17), 거기에서는 인류의 공평·정의와 아름다운 미래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정치의 합리성·합법성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순자 정치사상에서는 이상사회라고 할 수 있는 예치사회를 강조한다. 예치사회의 예는 일종의 계급사회를 유지하면서 이상사회로 향해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제도적 장치이고 보장인데, 그것은 예의 올바른 통합과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권력을 통한 사회통합을 필요로 한다(고재욱, 1994: 17). 순자 정치사상의 이상사회는 인륜이 확립되고 실현되는 사회로,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망을 잘 길러주면서도, 동시에 예의에 따라 인륜이 바로 선 유가적 이상사회인 것이다(하운하, 1992: 65). 이러한 이상사회는 ‘균거화일지도’ 내지 ‘지평’이라는 사회 구성의 원리를 실현함으로써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이상사회는 지평을 통해 차별은 있지만, 조화와 화합을 이루면서 평등을 지향하게 되고, 그리고 균거화일을 통해 다양하게 분화된 사회의 통합을 지향하게 된다.

선진유가 정치사상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동세계와 이상사회가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신할 수 있는 복지사회를 모색하는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사회정책을 근거하여 성립된 서구의 복지국가는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사회의 모색 내지 지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지만 복지사회의 성격에 대한 의견일치가 없고, 그에 따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복지사회는 복지국가의 단점을 규명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지금까지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색할 수 있는 복지사회는 보편주의와 예방적 성격을 띤 공공 복지서비스가 확대되고, 국가복지를 포함하는 다양한 복지가 공존하고 도덕성이 건재한 사회로 상정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선진유가 정치사상이 시사하는 복지사회는 기본적으로 유가의 복지에 근거하며, 국가, 공동체 그리고 생산이 결합된 복지형태로서 도덕심뿐만 아니라 그 도덕심을 실현할 수 있는 혁신적 방법을 중시한다(정병석·권상우, 2012). 이렇게 모색된 복지사회는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신하여 구상될 수 있는 이상국가 내지 이상사회인 것이다.

그리고 복지사회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유가의 개방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연고집단

21) 『孔子家語』에서 공자가 인간을 구분하기를 성인·현인·군자·사인·용인의 다섯 가지로 나누고 있다. 현인은 지덕을 겸비한 인격자로 성인의 지위에 버금가는 사람이다. 士人보다는 위에 있는 인격자이며 입금을 보좌해서 백성을 다스리는 인물이다. 따라서 현인은 덕행이 높고 학문과 지혜가 인격에 흠이 없으나 성인의 한 면만을 얻은 자이다(유무상, 2000: 123-124).

의 폐쇄성을 개선하고 사회복지의 역할을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혈연과 지역 네트워크가 복지자원으로 활용되고, 가족, 지역, 민간기업 그리고 정부의 역할과 역량 등이 상호 분담하게 된다. 이러한 복지사회의 실현은 혈연과 지연의 네트워크를 복지자원으로서 활용하면서 고령자 개호체제를 구축해 나간다고 하면 유교문화를 적용한 동아시아적인 고령복지모델의 모색도 가능하게 하고(선현규, 2004), 그리고 유교사상을 근거로 한 노인에 대한 좋은 돌봄(good care)의 정책담론 프로세스의 구상도 가능하게 한다(오세근, 2011).

복지사회는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정책에 대한 비판에 근거하여 모색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 간의 사회정책은 복지사회의 모색에 있어 단초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공·맹 정치사상의 대동사회와 순자 정치사상의 예치사회는 복지사회의 모색에 있어 단초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선진 유가정치사상은 복지사회의 모색을 위한 단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하겠다.

5. 결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될 과제는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대응하고, 그리고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다. 그러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서구 복지국가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경험에 대한 철저한 검토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의 역사적 전통과 경험에 대한 검토는 한국의 사상 전반에 대한 검토가 되어야 하지만, 전·근대에 걸쳐 우리생활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선진유가 정치사상에 한정하여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선진유가 정치사상이 가지고 있는 사회정책적 함의를 파악하는데 두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선진유가 정치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는 서론에서 제시된 연구문제에 대한 답변 형태로 다음과 같이 요약·정리할 수 있다.

먼저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사회정책의 영역에 어떠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지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이 사회정책의 핵심 영역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을 통해 전 국민에게 인간다운 최저한의 생활과 적절한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선진 유가 정치사상은 민생안정

이라는 백성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과 교육을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상정하였다. 경제 정책과 교육정책은 사회정책의 핵심영역으로 그것들의 우선순위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요컨대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경제정책과 교육정책이 사회정책의 핵심영역이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하겠다.

둘째,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사회정책의 가치에 어떠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지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제한적이지만 인간존엄에 내재되어 있는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평이라는 사회정책의 가치를 가진다는 것이다. 다만 현대 민주주의와 전제군주시대의 민본주의가 동일시 될 수 없기 때문에 선진유가 정치사상에서는 자유와 평등과 같은 사회정책의 가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순자 정치사상은 사회정책의 가치 중의 하나인 ‘공평’을 공유하고 있다. 공평은 사회정책의 가치 중 평등의 한 형태이지만, 사회정의 차원에서 강조된다. 그러므로 선진 유가정치사상은 제한적인 의미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공평이라는 사회정책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셋째,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복지국가의 대한 이해에 어떠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지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국가 복지와 공리주의와 관련된 내용을 가진다는 것이다. 현대 복지국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복지와 전체국민의 행복과 복지추구라는 공리주의에 의해 건설되었다. 요컨대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국가복지와 공리주의라는 복지국가에 대한 이해를 제고시킬 수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마지막으로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복지사회의 이해에 어떠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지는가? 그에 대한 답변은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복지사회를 모색하는데 있어 참고할만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서구 복지국가는 기존의 복지국가를 대신할 수 있는 새로운 복지사회의 모색 내지 지향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사회의 성격에 대한 의견일치가 없고, 그에 따른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공·맹 정치사상은 서구 국가들이 모색하고 있는 복지사회와 비슷한 의미의 대동사회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복지사회의 모색에 있어 단초로 활용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순자 정치사상의 예치사회는 인륜이 확립되고 실현되는 유가적 이상사회로, 그것 역시 복지사회의 모색에 있어 단초가 될 수 있다. 요컨대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복지사회를 모색하는데 있어 참고될만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정책적 함의를 가진다.

요컨대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위민’ 즉 백성을 위한 측면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 그

것은 현대 복지국가가 추구하는 방향과 유사하다. 그렇다고 한다면 선진유가 정치사상은 우리나라 현실에 부합되는 사회복지 제도 또는 모델을 모색하는데 있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선진유가 정치사상을 포함하는 유교는 폐지해야 될 유산이 아니라 앞으로 사회복지를 포함하는 다 방면에서 새롭게 조명되어야 하고, 활용되어야 할 유산이라고 하겠다.

■ 참고문헌 □

- 고재욱(1994). 순자의 사회사상. 퇴계학 연구. 8. 45-67.
- 곽신환(역)(1995). 직하학사. 劉尉華, 苗澗田, 稷下學史. (1992). 서울: 철학과 현실사.
- 금장태(1987). 덕치주의와 민본주의에 관한 條文. 제3회 유교사상학술회의.
- 김길환(1981). 동양윤리사상. 서울: 일지사.
- 김인규(2004). 공자의 정치사상. 한국철학논집. 14. 38-68.
- 김중무(1983). 제자백가(상). 서울: 삼성미술문화재단.
- 김종서, 양운용, 김락필, 강돈구, 윤원철, 조홍윤, 김필수(1990). 전통사상의 현대적 의미.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김철운(2005). 공자와 유가. 서울: 서광사.
- 김충렬(1994). 동양사상산고 II. 서울: 예문지.
- 김형효, 최진덕, 장승구, 김석근, 박흥기, 정해창(2000). 민본주의를 넘어서. 서울: 창계.
- 박병현(2008). 사회복지와 문화. 서울: 집문당.
- 박승희(1999). 사서에 나타난 유교의 사회복지사상. 사회복지학. 38. 126-152.
- 배원달(1989). 맹자의 정치사상에 관한 소고. 안동문화논총. 1. 349-371.
- 선현규(2004). 유교사상과 개호사상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5. 121-146.
- 성균관대 유학과 교재편찬위원회(2000). 유학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손문호(1987). 조선조 성리학 정치사상의 역사적 성격. 한국정치외교사학회보. 4(1). 87-108.
- 신동준(2007). 순자론. 서울: 인간사랑.
- 신섭중(1993).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대학출판사.
- _____ (2004). 동아시아형 사회복지의 구축. 지역사회. 분호. 117-121.
- 심창학(2004). 동아시아 복지 모델의 유형화 가능성 탐색. 사회복지정책. 18. 55-81.
- 안병주(1987). 덕치주의와 민본주의. 제3회 유교사상학술회의.
- 양순자(2002). 순자의 예론.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정하, 임광수, 황인옥, 신현석, 박미정, 윤성호(2008). 사회복지정책론. 서울: 양서원.
- 양정하(1992). 복지국가의 위기와 그 재편전략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 _____ (2003). 사회복지발달사. 서울: 현학사.
- _____ (2010). 사회복지와 유교 정치사상의 관련성에 관한 연구. 경남정보대학논문집. 38. 341-359.
- _____ (2012). 순자사상의 사회정책적 함의. 경남정보대학교 논문집. 40. 263-283.
- _____ (2013). 『주역』 기본원리의 사회정책적 함의. 한국시민윤리학회보. 26(2). 1-21.
- 오세근(2011). 현대 복지국가의 '돌봄' 위기에 대응하는 유교사상의 정책 담론 도출에 관한 연구. 동양사회사상. 24. 209-247.

- 유교사전편찬위원회(1990). 유교대사전. 서울: 박영사.
- 유무상(2000). 현대사회와 철학. 서울: 양서원.
- 유병용, 신광영, 김현철(2002). 유교와 복지. 서울: 백산서당.
- 윤사순(1990). 조선시대 성리학의 연구. 서울: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 이기동, 최영진(1994). 만화로 보는 주역 하. 서울: 두산 동아.
- 이동준(1997). 유교의 인도주의와 한국사상. 서울: 한울 아카데미.
- 이상익(2001). 유가 사회철학 연구. 서울: 심산.
- 이석규(1996). 조선초기 관인층의 민에 대한 의식. 역사학보. 151. 35-69.
- 이영찬(1998). 유가의 불평등이론. 동양사회사상. 1. 161-192.
- 전세영(1996). 순자의 정치사상 연구. 부산교대 초등교육연구소 초등교육연구. 8. 1-19.
- 정병우, 권상우(2012). 유가의 복지: 유형, 이념, 실천. 철학논총. 69(3). 459-483.
- 정연식, 조현걸(1987). 순자의 정치사상. 경북대 사회과학. 6. 63-86.
- 조남욱, 이동희, 안재순, 송석준, 박홍식, 이기동, 권정안, 이상은, 최영진, 오석원, 최일범, 천인석, 양재열, 이문주(1999). 현대인의 유교읽기. 서울: 아세아문화사.
- 조영훈(2001). 유교주의, 보수주의, 또는 자유주의? 한국의 복지유형 검토. 한국사회학. 35(6). 169-191.
- 조현규(2002). 동양윤리사상의 이해. 서울: 새문사.
- 최무종(1998). 유교 정치사상의 현대적 수용. 한국동북아논총. 8. 245-263.
- 최성철(1997). 선진유가의 정치사상 연구. 한국학 논문집. 11. 327-341.
- 최연식, 임유진(2011). 한국적 복지혼합의 유교적 기원. 21세기정치학회보. 21(3). 277-305.
- 하운하(1992). 순자의 인간관과 정치사상.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홍경준(1999). 복지국가의 유형에 관한 질적 비교분석. 한국사회복지학. 38. 309-335.
- 홍승표(2005). 유교 정치사상과 새로운 정치의 모색. 한국학논집. 32. 115-148.
- 小島佑馬(1968). 中國思想史. 東京: 創文社.
- 加藤尙賢(1943). 禮の起原と其發達. 東京: 中文館書店.
- 岸本英太郎(1968). 勞働問題の理論的諸問題.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論語」

「孟子」

「書經」

「荀子」

「禮記」

- Jones, C. (1991). Hong Kong, Singapore, South Korea and Taiwan: Oikonomic welfare state. Government and Opposition. 25(4). 446-462.

Robson, W. (1976). *Welfare state and welfare society*. London: George & Allen,
Rokeach, M. (1973). *The nature and human values*. New York: The Free Press,
Spicker, P. (1988). *Principle of social welfare*. London: Routedledge.

The Implications of Social Policy in Confucian Political Thoughts in Pre-Qin Period

Yang, Jung-Ha*

Social policy in Korea is not only policy problems but also ideological and cultural ones. It is required to investigate the ideolog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in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lications of social policy in Confucian political thoughts in pre-Qin period which have been formed as one of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in Korea. The implications of social policy in Confucian political thoughts in pre-Qin period have been suggested such as follows. First, the Confucian political thoughts in pre-Qin period emphasis economic policy and educational policy in boundaries of social policy. Secondly the Confucian political thoughts in pre-Qin period and social policy share the values in social policy such as esteeming human being and equity. Third, the Confucian political thoughts in pre-Qin period have the understanding foundations of welfare state. Finally the Confucian political thoughts in pre-Qin period suggest the clue of welfare society replacing the existing welfare state. In conclusion the Confucian political thoughts in pre-Qin period provide us the implications of social policy. Therefore the Confucianism is the important heritage which must be much highlighted and actively used in many aspects of our society including social policy.

Key Words: social policy, confucian political thoughts, boundary and value of social policy, welfare society

◆ 2015.07.31. 접수 / 2015.08.28. 1차 수정 / 2015.09.25. 게재 확정

* Ph. D. Associate Professor, Social Welfare, Kyungnam College of Information & Technology(yangjh1485@naver.com)